

발해 부흥 운동 왕국의 재건을 위해 싸운 발해 유민 의 투쟁사

927년

1 개요

925년 12월부터 시작된 거란의 공격에 발해는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옛 발해 땅에는 거란이 세운 괴뢰국 동란국(東丹國)이 들어섰지만, 곧 발해 유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발해 유민의 부흥 운동은 927년 안변부·막힐부·정리부·장령부 일대 유민들의 항쟁을 시작으로 하여, 후발해국과 정안국 등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10세기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다. 또 이후로도 1029년에는 발해 유민 대원립이 흥요국을 건국하였지만 이듬해 멸망하였고, 1116년에는 고영창(高永昌)이 대발해(大發海)를 세웠다가 같은 해에 멸망하는 등 발해 유민들은 거란의 지배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부흥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2 발해의 멸망

1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는 극심한 혼란기를 맞이하였다. 중원에서는 당이 무너지고 5대 10국의 혼란기가 시작되었으며, 한반도 지역에서는 신라가 쇠퇴하며 후삼국 시대가 개막되었다. 발해 역시 선왕(宣王, 재위: 818~830) 시대 이후로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하여 이 무렵에 이르면 극심한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 각지가 혼란에 빠질 무렵 라오허(遼河) 상류 지역과 동몽골 일대에 흩어져 살던 유목 세력인 거란족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라는 결출한 영웅의 지휘 아래 동아시아 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거란은 중원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고 먼저 911년 서쪽 지역의 해(奚)와 습(霫)을 정복하고 동쪽의 발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거란과 발해는 요동 지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925년에 접어들면서는 전쟁의 형세가 순식간에 거란 측으로 기울어버리게 된다.

925년 서방에 대한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란의 지도자 야율아보기는 그해 12월 21일부터 발해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관련사료 전쟁 시작 9일 만에 발해의 서북방 핵심 거점 부여부(扶餘府)를 포위한 거란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다. 거란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발해의 부여부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못해보고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만다. 발해 중앙에서도 거란의 침공을 막기 위해 3만의 병력을 급파하였지만, 이들 또한 거란군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다. 거란의 전격전에 발해는 속절없이 밀려나며 1월 9일 마침내 수도까지 포위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926년 1월 14일, 수도가 포위된 지 6일 만에 발해는 정식으로 거란에 항복하였고, 이로써 성세를 자랑했던 '해동성국' 발해는 그 역사의 종막을 고하였다.

3 저항을 시작한 발해 유민, 발해를 재건하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발해 지역에 일종의 괴뢰국인 동란국(東丹國)을 세우고 야율아보기의 첫째 아들인 황태자 야율배(耶律倍)를 동란국 황제 자리에 앉혔다. 관련사료 한편, 934년 고려로 망명한 발해 왕실의 태자 대광현(大光顯)을 비롯하여 수많은 발해인 집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로 망명하였으며 또한 많은 유민이 거란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옛 발해의 땅에 남아 있던 발해 유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력을 규합하여 거란의 지배에 대항해 끈질긴 저항